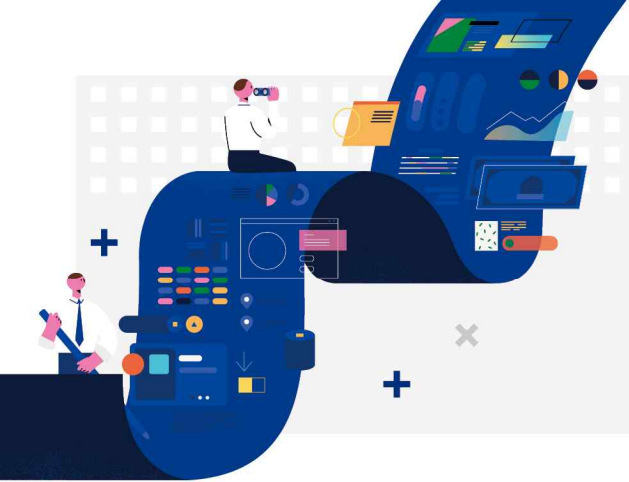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8호 (2024.09.27)

- 이 슈  
(산업)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인천의 산업정책 과제
-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8호 (2024.09.27)

## Cotents

### I. 이 슈

(산업)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인천의 산업정책 과제 · 1

### II.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 10

### III. 국내 정책동향

(교육) 영유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운영 예정 · 11

(주거) 정부,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공공주택 분양 시작 ..... 11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계적 인상하는 '연금개혁 추진계획' 심의·확정 ..... 12

(교통) 국토부,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발표 ..... 12

(경제)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선 ..... 13

(교육) 전국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에서 연중 상시 디지털 교육 제공 13

(산업) 정부, mRNA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지원 추진 ..... 14

(금융) 오는 10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 14

## 연구진

- |            |                        |
|------------|------------------------|
| <b>최태림</b>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b>민규량</b> |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 <b>상민경</b>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
| <b>이준영</b> |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산업** >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인천의 산업정책 과제** +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바이오제약

- 글로벌 바이오 제약산업은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관련 분야를 반도체, 이차전지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첨단전략산업으로 선정<sup>1)</sup>
  - ‘바이오산업’은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생물 시스템인 바이오를 융합해 새롭게 창출되는 산업 전반”을 의미하며, 바이오 제약 산업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레드바이오’ 산업으로 분류
    - OECD 및 EU는 바이오산업을 △보건·의료(의약품·의료기기) 부문의 ‘레드바이오’ △식량·자원(기능식품 등) 부문의 ‘그린바이오’ △에너지·화학(바이오 연료 등) 부문의 ‘화이트바이오’ 등 크게 3개 분야로 분류
  - 최근 제약시장은 화학 합성을 통해 고혈압 약, 진통제 등을 제조하는 ‘합성(화학)의약품’에서 생물공학기술 및 합성생물학 등을 이용해 사람·동물에서 유래된 단백질을 원료로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을 제조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패러다임 전환 중
    - ‘24년 기준 세계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 비중은 약 52%로, ‘08년(30%) 대비 22%p 증가
  -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3년 5,044억 달러에서 ‘27년 6,757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6.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시장 역시 ‘21년 10조 4,486억 원에서 ‘26년에는 약 13조 5,660억 원으로 연평균 5.53%로 성장할 전망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의 수요 증가,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바이오시밀러(복제) 의약품 시장의 성장 등이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확대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
  - 바이오산업 성장세에 따라 ‘23년 5월 정부는 바이오 분야를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이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27년까지 550조 원 이상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는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표 1] 세계 바이오의약품 시장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CAGR |
|------|--------|--------|--------|--------|--------|--------|------|
| 시장규모 | 499.88 | 504.37 | 532.37 | 574.45 | 624.51 | 675.72 | 6.2% |

\* 자료: Forst & Sullivan(2023),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2023)

1)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2023) 및 관계부처 합동(2023)을 참고하여 작성.



- 우리나라가 바이오 제약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선발주자인 선진국과의 경쟁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코로나-19 관련 수요를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바이오 시장에 진출 중
  - 제약산업은 ICT 등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수명주기(technological cycle time)가 길기 때문에, 신규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 현재 산업 주도권을 지닌 선진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 바이오-제약과 같이 기술 수명주기가 긴 산업의 경우 특허 등에 기반한 선발주자의 기술적 독점력이 장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산업적 특징을 보유했다
  - 다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시장의 주도권을 지니고 있었던 ICT 분야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바이오 제약 산업과 같이 기술 수명주기가 긴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
    - ICT와 같이 기술 수명주기가 짧은 산업 분야는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점에 맞춰 후발주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용이
    - 과거 우리나라 역시 ICT 산업의 기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시장에 진입하여 일본, 유럽 등 기존 선발주자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였으나, 현재는 반대로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에 직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는 관련 산업의 새로운 기회의 창을 열었으며,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역시 해당 시기에 맞춰 바이오산업에 적극적인 진출을 시작
    -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기 시작함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
    - '22년 2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
    - 삼성바이오로직스·SK팜테코 등은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에서 지속적인 생산 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업으로 성장 중
  
-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및 최근 대두되는 기술 안보 문제 대응 차원에서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
  - 미국, EU,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및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의 규제 등의 개선하는 등 바이오 제약산업의 육성·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 미국과 EU의 경우 바이오 관련 분야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원재료 및 위탁개발생산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춰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주력
    - 영국, 일본, 중국 등은 코로나19 등 신종 팬데믹과 비만, 치매, 노화 등 인류의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의약 분야 성장전략을 수립

- 우리나라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sup>2)</sup>'을 수립하고 있으며, '23년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제약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제3차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
- 특히, 제3차 종합계획부터는 바이오의약품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해당 계획의 명칭을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으로 변경
- 동 계획에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 △글로벌 수준의 제약 바이오 기업 육성 △의약품 수출 증대 △제약 바이오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임상시험 글로벌 순위 제고 등을 목표로, 4대 전략 및 10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

[표 2] 주요 국가 및 국내 바이오 제약 분야 정책 현황

| 국가  | 주요 내용   |
|---|---|
| <br>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생명공학·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22.09)' ⇨ 제조 인프라 구축 본격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산업 등 미국 내 바이오제조 인프라 및 제품 의무구매 확대</li> <li>- R&amp;D, 데이터, 인력, 규제, 생물안전·보안, 생태계 보호, 국제협력 등 후속계획 발표 예정</li> </ul> </li> <li>•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 ⇨ 연구 가속화, 혁신적인 기술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3월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에 신설된 특별기구로, △보건의료 분야 난제 해결 △바이오기술 주도권 유지 △보건안보 이슈 대응을 위해 도전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를 전담</li> <li>- ALL of US, BRAIN 등 美 NIH 주관의 대형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 → 바이든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가속화 전략 추진</li> </ul> </li> </ul> |
| <br>E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orizon Europe('21~'27)' ⇨ 국가 단위의 대규모 공동연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R&amp;D 프로젝트 진행</li> </ul> </li> <li>• 'EU 신제약산업전략('20)' ⇨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혁신 의약품 개발 및 수급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약품의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역내 기업의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 부여</li> <li>- EU 역외 의존도가 높은 6대 산업을 육성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발표한 '유럽 신산업전략'과 연계</li> </ul> </li> </ul>  |
| <br>영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데이터 전략(National Data Strategy)('21)' ⇨ AI혁신의 글로벌 중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혁신전략('17)'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영국의 인공지능·과학기술 분야의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 수립</li> </ul> </li> <li>• '생명과학 비전('21)' ⇨ 신속·효율적 규제, 내수 강화 등 핵심 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데믹, 암, 비만, 치매, 노화 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7가지 미션 제시</li> </ul> </li> </ul>   |
| <br>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전략 2020 및 후속 발표('20~)' ⇨ 새로운 의료기술 연구개발 집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개 시장영역 중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디지털헬스, 바이오의약품 재생의료·세포치료·유전자 치료, 바이오생산시스템, 바이오 관련 분석·측정·실험 시스템 강조</li> </ul> </li> <li>• '성장전략 2021' ⇨ 10대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망관리, R&amp;D 투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오, 건강의료, AI, 재료, Beyond 5G, 슈퍼컴퓨터, 양자, 반도체, 우주시스템,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경제 안보를 위한 기술우위 확보를 강조</li> </ul> </li> </ul>  |

2) 제1차 계획은 2013~2017년, 제2차 계획은 2018~2022년을 대상으로 수립.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5 바이오산업 골기(‘22.05)’ ⇨ 바이오·의약 제품 생산·설비·공급망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상, 신약, 헬스케어에서 국가중대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및 공급망 내 대기업 주도 자원 개발을 통한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목표</li> </ul> </li> <li>•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 강요(‘16.05)’ ⇨ ‘49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프로젝트(신약, 감염병 예방, 건강, 뇌과학 등), 선진산업체제(바이오기술) 등 중점지원과제로 선정하여 지원</li> </ul> </li> </ul>   |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3.03)’ ⇨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강화, 수출지원, 인력양성, 제도·인프라개선 등 4대 전략 분야의 10대 과제 수행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대 목표</li> </ul> </li> </ul> <table border="1" data-bbox="378 505 1225 774"> <thead> <tr> <th>4대 전략</th> <th>10대 중점과제</th> </tr> </thead> <tbody> <tr> <td>연구개발 강화</td> <td>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전략적 R&amp;D 투자<br/>② 보건안보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R&amp;D 투자<br/>③ AI·빅데이터 등 신약개발의 디지털 전환 촉진</td> </tr> <tr> <td>수출 지원</td> <td>① 제약바이오 금융지원 강화 및 창업 지원 ② 핵심 수출산업화</td> </tr> <tr> <td>인력양성</td> <td>① 핵심인재 양성 ②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td> </tr> <tr> <td>제도·인프라 개선</td> <td>①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 지원<br/>②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br/>③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 강화</td> </tr> </tbody> </table> | 4대 전략 | 10대 중점과제 | 연구개발 강화 | 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br>② 보건안보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R&D 투자<br>③ AI·빅데이터 등 신약개발의 디지털 전환 촉진 | 수출 지원 | ① 제약바이오 금융지원 강화 및 창업 지원 ② 핵심 수출산업화 | 인력양성 | ① 핵심인재 양성 ②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 제도·인프라 개선 | ①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 지원<br>②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br>③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 강화 |
| 4대 전략   | 10대 중점과제   |       |          |         |   |       |                                    |      |                         |           |  |
| 연구개발 강화   | ①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전략적 R&D 투자<br>② 보건안보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R&D 투자<br>③ AI·빅데이터 등 신약개발의 디지털 전환 촉진  |       |          |         |   |       |                                    |      |                         |           |  |
| 수출 지원   | ① 제약바이오 금융지원 강화 및 창업 지원 ② 핵심 수출산업화   |       |          |         |   |       |                                    |      |                         |           |  |
| 인력양성  | ① 핵심인재 양성 ②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       |          |         |   |       |                                    |      |                         |           |  |
| 제도·인프라 개선   | ① 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제도 지원<br>② 임상시험 글로벌 3위 달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br>③ 의약품 밸류체인별 인프라 강화   |       |          |         |   |       |                                    |      |                         |           |  |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참고 및 재구성

- 인천은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명확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도 높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산·학·연 연계 및 기술혁신 기반·성고가 취약하다는 약점이 존재
  - 인천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 등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으며, 정부 역시 2024년 6월 인천을 포함한 5개 지역을 바이오 부문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추진
    - 인천은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116.5만L)을 갖춘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우리나라의 주요 바이오의약품 기업들이 밀집
    - 정부는 '24년 6월 인천·경기(시흥)를 포함한 5개 지역<sup>3)</sup>을 바이오 부문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였는데, 의약품 생산 관련 특화단지 중에서는 인천의 의약품 생산 규모 및 능력이 독보적인 수준
    - 인천시는 금번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바이오산업 중심지인 송도와 함께 영종도 유보지를 신규 투자지역으로, 남동공단을 바이오 소부장 핵심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또한 인천지역은 바이오 관련 산업특화도가 높고, △입지 △인력 △세제 혜택 △물류 △산업집적 등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타지역에 비해 산업의 비교우위가 확실
    - '22년 기준 인천지역 의약품 제조업<sup>4)</sup> 종사자 수는 7,623명으로 전국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중 약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바이오 제약 산업의 특화계수(LQ)는 약 3.98로 상당히 높은 수준<sup>5)6)</sup>

3) 의약품 생산 특화단지 : △인천·경기(시흥) △강원(춘천·홍천)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신약 연구개발 특화단지 : 대전(유성).  
 4) 전국 제10차 표준산업분류상 '20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기준  
 5) 특화계수(입지계수: Location Quotient, LQ)는 특정 산업의 지역 간 상대적 특화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다음의 수식으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산업의 입지계수가 2 이상일 경우, 특정 지역이 해당 산업에 특화된 것으로 간주.  
 (특화계수) = [ (i 지역 j 산업 종사자 수) / (i 지역 전체 종사자 수) ] / [ (전국 j 산업 종사자 수) / (전국 종사자 수) ].  
 6) 통계청(MDIS)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

#### 4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관내 'WHO 바이오 인력양성허브'와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메인캠퍼스'가 조성되어 있어, 바이오 제약 산업에 필요한 고급 인력의 확보가 용이
- 바이오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는 인천 송도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은 조세 및 임대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이에 인천항-인천공항 등 우수한 물류 시설과 송도국제도시를 보유하여 기업활동 및 근로자 정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
- 반면, 인천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타지역에 비해 바이오 분야 연구기관·대학의 규모가 작고, 기술혁신을 위한 조직 기반 및 성과 역시 부실하다는 취약점을 보유(한국은행 인천본부, 2021)
- 인천 송도의 바이오 클러스터는 아직까지 소수의 대형 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관련 분야의 중·소형 벤처기업의 창업 여건이 미흡하여 지역의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너지 창출 역할이 부족
- 또한 클러스터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반이 부족하여 산·학·연 연계를 통한 선순환구조 구축이 미비하고, 특히 보유 기관 수도 적은 편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sup>7)</sup>



\* 자료: 인천광역시(2024.06)

[그림 1] 인천시-시흥시 바이오 특화단지 구성도

- 인천의 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 전체의 밸류체인을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 수행 이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현재 인천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클러스터 선도기업의 생산설비 투자를 바탕으로 위탁개발생산(CDMO) 등 생산 부문의 양적 확장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안정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 활동의 활성화가 필수적
- 인천지역 바이오기업이 주로 속해있는 CDMO 분야와 같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부문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작은 편이며, 대규모 설비투자를 진행한 후발주자에게

7)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인천지역 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7,623명(국내 종사자 중 약 19.74%)으로 지역별 종사자 수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경기 36.09%, 충북 19.00%),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2023)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 바이오의약 분야 특허 출원 점유율은 1.9%로, 서울(34.5%), 경기(16.4%), 대전(10.8%)에 비해 미약한 수준.

### 추격당하기 쉬운 부문

- 반면 신약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R&D) 분야는 소요 시간 및 비용 대비 성공률이 낮은 편이나,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 가능
- 인천의 경우 기구축된 관련 인프라를 포함하여 바이오 제약산업 성장에 다양한 이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 내 바이오산업의 저변을 신약 개발 등 신규 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
- 인천의 바이오 제약 산업 관련 산업정책은 연구개발 부문을 포함한 수직적 밸류체인 확장과 더불어, 신약 및 제약 신기술 등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블록버스터급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
- 이를 위해서는 ①바이오제약 기업들의 건설·설비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및 금융지원 강화 ②전력·용수 등의 산업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 ③특화단지 육성과 연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의 지자체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중앙정부에서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만큼,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책을 지역 산업에 유리하게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
- 정부는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24년 하반기 중 특화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 수립할 예정인바, 이를 통해 △특화단지 대상 R&D 예산 신속 집행 △연구개발 허브 구축 등 관내 바이오 제약 산업의 수직적 밸류체인의 확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
- 구체적으로 인천·경기(시흥) 특화단지 육성계획 수립에 있어 ①연구개발 기반 시설 구축 ②산·학·연 연계 강화 ③바이오산업 관련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과 같이 인천 바이오제약 산업이 지닌 취약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의 마련이 요구
- 또한 특화단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 영종도 부지의 경우 아직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제2항<sup>8)</sup>에 기반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것도 중요
- 최근 경제자유특구 및 입지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혜택이 축소되고 있음<sup>9)</sup>을 고려하여 클러스터에 입지하고 있는 인천 바이오기업들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해당 사항이 중앙정부의 바이오 국가전략산업특화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활발한 교섭을 진행할 필요

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제2항 : …(생략).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략).

9) '1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이 폐지되었으며, 지방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의 인센티브는 인천과 같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은 대상이 되지 않음.

## 서비스

##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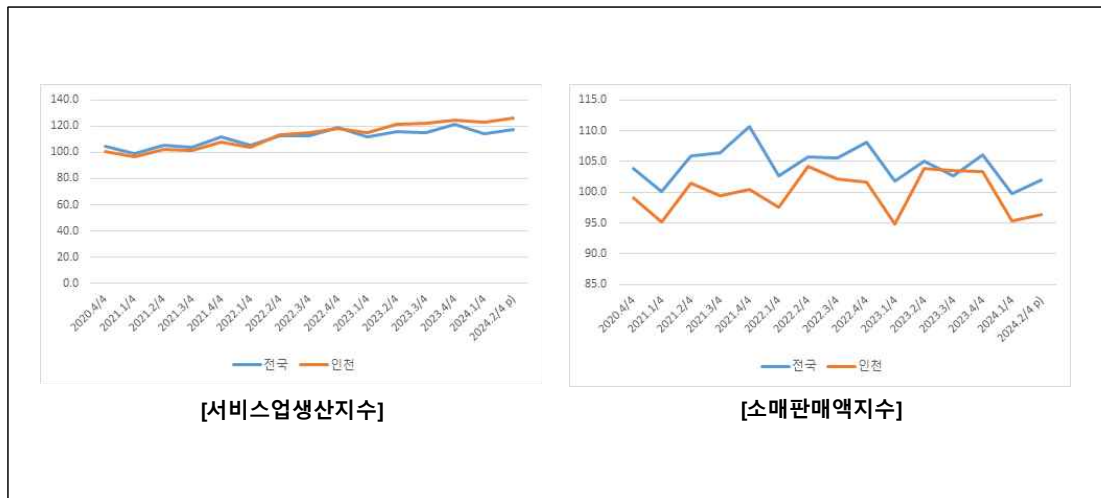
- **(서비스생산)** 2024년 2분기 서비스업 생산 경기는 전국과 인천 모두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각 서비스업 부문별 생산 경기에는 차이가 존재
  - **(전국)** 2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3.0%, 전년동기대비 1.6% 증가한 117.4 수준으로, 2021년부터 꾸준히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를 유지
    - 세종(-0.8%), 경남(-0.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종 및 경남의 생산지수 감소는 부동산업 분야에서 각각 전년동기대비 28.6%, 15.1% 수준의 큰 폭의 감소가 있었던데 기인
    -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대체로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의 경우 전기대비 11.2% 증가한 97.5 수준으로 부진하던 경기가 다소 회복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운수 및 창고업(10.6%)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4.9%) △정보통신업(4.2%) 순이며, △도·소매업(-2.1%) △숙박 및 음식점업(-1.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1.4%)은 4분기 연속 전년동기비 감소
  - **(인천)** 인천의 2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기대비 2.9%, 전년동기대비 4.0% 증가한 126.1 수준으로, 지난해 2분기 이후 12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경기 흐름이 지속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운수·창고업의 높은 생산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13개 서비스 업종 중 8개 업종에서 생산지수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며 전체 지수의 개선이 더디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 인천의 전년동기대비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6.4%) △정보통신업(10.2%) △운수·창고업(8.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5.6%) 등 기존에 생산지수의 증가세가 확인했던 부문에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7%) △교육 서비스업(-3.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2.5%) △숙박 및 음식점업(-1.8%) 등의 경우 전년동기비 생산이 부진한 상황
    - 전년동기대비 생산감소세를 보이는 부문 중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의 경우 생산지수의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4분기 이상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

[표 1] 서비스업 주요 부문 생산지수

| 지역 | 항목            | '23.4/4 | '24.1/4 | '24.2/4<br>(p) | '23.2/4 | 전기비   | 전년<br>동기비 |
|----|---------------|---------|---------|----------------|---------|-------|-----------|
| 전국 | 도매·소매업        | 108.6   | 102.2   | 104.6          | 106.8   | 2.3%  | -2.1%     |
|    | 운수·창고업        | 146.5   | 142.7   | 151.8          | 137.2   | 6.4%  | 10.6%     |
|    | 숙박·음식점업       | 121.3   | 113.7   | 119.7          | 121.5   | 5.3%  | -1.5%     |
|    | 금융·보험업        | 127.8   | 128.5   | 127.3          | 124.0   | -0.9% | 2.7%      |
|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 188.9   | 152.4   | 198.3          | 189.1   | 30.1% | 4.9%      |
| 인천 | 도매·소매업        | 111.7   | 107.9   | 111.0          | 110.2   | 2.9%  | 0.7%      |
|    | 운수·창고업        | 190.2   | 184.9   | 188.6          | 173.3   | 2.0%  | 8.8%      |
|    | 숙박·음식점업       | 107.3   | 100.1   | 106.7          | 108.7   | 6.6%  | -1.8%     |
|    | 금융·보험업        | 111.4   | 113.1   | 112.0          | 113.5   | -1.0% | -1.3%     |
|    |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 | 238.8   | 339.2   | 355.6          | 190.8   | 4.8%  | 86.4%     |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비율(%)로 표기  
 2 : 각 자료는 산업별,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서비스업생산지수(2020=100.0)' 및 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소매판매액지수의 전국자료는 '재별 및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의 불변지수를 사용

[그림 1] 서비스산업 동향 추이(2024년 2분기)

- **(소매판매)** 2024년 2분기 전국과 인천 소매판매액지수가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하며 약보합세
  - **(전국)** 전국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2.2% 증가,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 102.0으로, 코로나 시기 이후 약보합세
    - 2024년 2분기 전국 소매판매액지수는 17개 시도 중 △충남(4.0%) △충북(0.7%) 2개 지역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전년동기대비 감소
    - 전년동기비 소매판매 감소 지역은 △울산(-7.9%) △인천(-7.2%) △서울(-6.8%) 등의 순으로, 승용차·연료소매점을 선두로 모든 부문에서 대체로 전년동기비 감소
  - **(인천)** 2분기 인천의 소매판매액지수는 전기대비 1.2% 증가, 전년동기대비 7.2% 감소한 96.4로, '24년 들어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
    - 대형마트와 전문소매점을 제외한 소매업종의 판매가 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면세점(36.0%)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전년동기대비 소매판매액지수가 감소하며 전반적인 소매판매 경기는 약보합세

[표 2] 전국 및 인천 업종별 소매판매액지수

| 지역 | 항목           | '23.4/4 | '24.1/4 | '24.2/4<br>(p) | '23.2/4 | 전기비   | 전년<br>동기비 |
|----|--------------|---------|---------|----------------|---------|-------|-----------|
| 전국 | 백화점          | 145.7   | 128.8   | 130.5          | 140.2   | 1.3%  | -6.9%     |
|    | 대형마트         | 94.7    | 95.6    | 89.6           | 91.1    | -6.3% | -1.6%     |
|    | 면세점          | 86.6    | 83.9    | 83.7           | 77.6    | -0.2% | 7.9%      |
|    | 슈퍼마켓 및 잡화점   | 86.2    | 84.0    | 84.6           | 91.6    | 0.7%  | -7.6%     |
|    | 편의점          | 102.2   | 94.7    | 106.9          | 107.3   | 12.9% | -0.4%     |
|    |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 108.9   | 96.7    | 100.2          | 107.3   | 3.6%  | -6.6%     |
|    | 전문소매점        | 102.1   | 96.5    | 99.3           | 103.9   | 2.9%  | -4.4%     |
|    | 무점포소매        | 119.0   | 115.9   | 116.9          | 111.0   | 0.9%  | 5.3%      |
| 인천 | 대형마트         | 99.2    | 97.1    | 90.8           | 92.3    | -6.5% | -1.6%     |
|    | 면세점          | 245.8   | 266.7   | 292.2          | 214.8   | 9.6%  | 36.0%     |
|    |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 | 87.7    | 84.0    | 86.7           | 92.7    | 3.2%  | -6.5%     |
|    |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 99.7    | 82.7    | 86.4           | 104.1   | 4.5%  | -17.0%    |
|    | 전문소매점        | 102.2   | 97.9    | 94.6           | 101.0   | -3.4% | -6.3%     |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소매판매액지수(2020=10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분기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2 : 각 자료는 시도별, 소매업태별 판매액지수 중 불변지수를 사용

## [ 부록 ]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4.08 잠정)

(단위 : 십만\$, %)

|         | 전국      |      |         |       |        | 인천     |       |        |       |        |
|---------|---------|------|---------|-------|--------|--------|-------|--------|-------|--------|
|         | 수입      |      | 수출      |       | 수지     | 수입     |       | 수출     |       | 수지     |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금액     | 증감    | 금액     | 증감    |        |
| 반도체     | 102,916 | 2.9  | 187,477 | 26.2  | 84,561 | 20,463 | 28.6  | 20,715 | 17.4  | 251    |
| 자동차     | 16,080  | 1.2  | 67,232  | -3.9  | 51,152 | 898    | -21.7 | 4,524  | -14.2 | 3,625  |
| 기계장비    | 48,934  | 3.2  | 63,001  | 11.4  | 14,067 | 6,582  | 58.0  | 5,467  | 25.0  | -1,115 |
| 바이오-의약  | 8,978   | 11.8 | 7,516   | 103.7 | -1,461 | 975    | 43.8  | 5,460  | 163.9 | 4,486  |
| 바이오-화장품 | 1,780   | -2.6 | 8,169   | 20.3  | 6,389  | 25     | 13.1  | 1,224  | -19.9 | 1,219  |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과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교육

영유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확대 운영 예정



#교육부

○ 교육부는 가정의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4년 말까지 288곳의 시간제 보육\*을 제공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총 2,315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

- \* 시간제 보육 서비스란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인한 일시적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던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여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새롭게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제공기관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

| 구분   | 독립반  | 통합반  |
|------|--|--|
|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li> <li>• 전화 신청(Tel.1661-9361)</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li> </ul>   |
| 기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9:00)부터 이용 당일(12:00)까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일 14일 전(00:00)부터 2일 전(24:00)까지</li> </ul>   |
| 급·간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립반의 경우, 원칙적으로 급·간식 제공 없음</li> <li>* 단 제공기관·이용자 간 합의를 통해 부모부담으로 제공 가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비용은 부모부담(2,200원)</li> <li>* 포털에서 이용 예약 시 급·간식 이용 여부 선택</li> </ul> |
| 제출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li> <li>•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li> </ul> |  |
| 준비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귀, 개별 침구, 간식 등 개별 준비물 및 국민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li> </ul>   |  |

주거

정부,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공공주택 분양 시작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지구 및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을 9월 내 시행하고, 지난 4일 지정된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및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택공급 역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 우선 오는 9월 30일부터 인천계양 A2·A3 블록의 주택 1,106호에 대하여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사전청약 및 본청약을 진행하고, '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 또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공공주택 263호 역시 이달(9월) 말 분양공고를 진행하고, '28년 입주를 목표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할 예정
- 한편 9월 4일 지구 지정된 서울 남현지구와 신길15구역 지구의 경우, 각각 '27년 공공주택 400호 및 '29년 공공주택 2,300호 분양을 목표로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

## #보건복지부

-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확정
  - 동 추진계획은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①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②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신뢰성 제고 ③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중심으로 구성
  - 동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0%에서 13.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0%에서 42.0%까지 상향조정할 계획
    - 또한 연금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기금수익률을 1%p 이상 제고(5.5%+α)하고,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
    - 연금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하기 위해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여 적용하고, 미래세대의 연금수급 보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
  - 이에 더해 국민연금의 △출산 크레딧 강화 △군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강화 △의무가입연령 상향과 기초연금 인상 및 빈곤 노인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노후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개별 국민의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보조적 수단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을 강화할 예정

## #국토교통부

-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수도권 서부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를 위한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

| 구분                                 | 주요 내용  |
|------------------------------------|--|
| 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한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방화역-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사업 '31년까지 준공</li> <li>• '부천 대장지구-화곡역(5)-가양역(9)-흥대입구(2,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사업 연내 착공</li> <li>• 7호선의 인천 청라 연장 사업 단계적 개통('27년 하반기 청라국제업무단지, '29년 청라국제도시역)</li> <li>• 인천 1호선 종점의 인천 검단 연장사업, '25년 6월 개통 계획</li> </ul>                  |
| 대중교통 수송력 증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비 지원을 통해 혼잡도가 높은 9·7호선을 '27년까지 한시적으로 증편(각 4편, 1편)</li> <li>• (인천) 검단신도시(M6457)-청라(M6458)-강남 간 직행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 신설</li> <li>• (김포) GTX-A 킨텍스역 연결 시내버스 노선 2개, 당산역-상암DMC 종점 광역버스 노선 2개 신설</li> <li>• 인천계양-김포공항 BRT 신설 및 청라-경기 부천-화곡역 구간 일반 노선버스 추가 운행 방안 마련</li> </ul> |
|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 조기화 및 기존 교통운영체계 개선·효율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광위의 갈등조정 및 집중관리를 통해 3기 신도시(인천 계양, 부천 대장) 연결도로인 경명대로·벌말로·오정로·소사로 확장 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27년 12월부터 순차적 조기 개통</li> <li>• '고강C',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C' 신설, 검단-드림로 대체도로 신설 및 일부 구간 우선 개통</li> <li>• 혼잡 노선의 당산역 환승센터 운영 검토 및 부천 고강본동-고강1동-범박동-옥길동에 DRT 투입</li> </ul>                   |



#국토교통부

-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 및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
  - 국토부는 금번 방안을 통해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균형성 평가 기준을 활용해 균형성이 저하된 지역·부동산을 선별하여 개선할 계획
    -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의 산정 방식을 '공시가격 = 전년도 공시가격×(1+시장변동률\*)'로 개선하여,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거래가격과의 역전현상 발생을 최소화
    - \*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한 부동산 각각의 시장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
    -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여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을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 후, 해당 지역(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공시가격을 확정
  - 국토부는 금번 방안의 시행으로 집값 변동과 관계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신규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전국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를 통해 연중 상시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
  - 지난 '20년부터 과기정통부가 운영해 오던 디지털 배움터의 경우 상시적인 교육 제공이 어렵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직접 실습·체험이 부족한 단점을 보유
  - 이에 과기정통부는 전국에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36곳을 지정하고 연중 상시로 이용할 수 있는 △실생활 디지털 교육(무인단말기, 모바일 앱 등) △1:1 도움창구 △디지털 체험구역 등을 운영할 계획
    - 거점센터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의 디지털 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로당, 복지관 등 3,000개소 이상의 지역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계층별 특화 교육을 제공할 예정
    - 또한 △민원 발급 △음식 주문·결제 △교통서비스 등 실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무인 단말기·앱을 실습할 수 있는 에뮬레이터를 개발·지원하고,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학습자료 및 온라인 교육자료도 제작·보급할 예정
  - 거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디지털 배움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도움창구를 통해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 정부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에 대비하는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기 위한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신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 확보를 목표로 4년 동안 비임상-임상3상까지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
  - 지난 13일 질병관리청은 미래 팬데믹 대비와 mRNA 플랫폼 확보를 위한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을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mRNA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
  - 금번 방안에 따른 mRNA 백신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mRNA 기술의 백신 신속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미래 팬데믹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며, 4년 간의 임상-비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28년까지 mRNA 백신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
    - \* (1단계, '25)비임상→(2단계, '25~'27)임상 1상→(3단계, '26~'27)임상 2상→(4단계, '27~'28) 임상 3상/품목허가
  -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인·허가, 특허 등 관련 규제 해소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 참여기업에 mRNA 백신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비임상·임상 기술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오는 10월 출시할 계획
  - 지난 19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및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 동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이 협업을 통해 도입하는 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될 예정
    - 동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월 최대 50만 원에 해당하는 본인 납입금액에 재직자 납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업지원금과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를 더해 일반 저축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많은 기업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
  - 해당 상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해 협의하고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협약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가능

## 참고 자료

- Forst & Sullivan, 「Global Pharmaceutical Industry Outlook, 2023」, 2023.03.
-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 - 바이오」, 2023.12.
-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안)」, 2023.03.
- Keun Lee, 「Innovation-Development Detours for Latecom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4.
- 보건복지부·외교통상자원부, “대한민국,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우뚝 서다”, 2022.02.23.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건의료 혁신을 향한 도전, ARPA-H」, 글로벌 이슈 파노라마 제6호, 2023.10.11.
- 산업통상자원부, “5개 바이오 특화단지를 통한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제조허브 도약”, 2024.06.27.
-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전국사업체조사’.
- 한국은행 인천본부, “인천지역 바이오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 2021.03.09.
- 인천광역시, “인천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종 선정”, 2024.06.27.
- 통계청, “분기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2023년 3/4분기)”, 2023.11.09.
-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88곳 추가 지정…영유아 양육부담 완화”, 교육부, 2024.09.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 인천계양 공공주택 1106호 분양”, 국토교통부, 2024.09.0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로 인상…‘장기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보건복지부, 2024.09.0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서부 출퇴근길 최대 36분 단축…광역철도·도로망 신속구축 #민생토론 후속조치”, 국토교통부, 2024.09.1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시가격 산정 방식 ‘시장변화 충실히 반영’ 방향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 2024.09.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국 36개 ‘디지털 배움터 거점센터’ 지정…상담·교육 상시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9.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백신 주권 확보’…mRNA 백신 플랫폼 개발 내년 착수”, 보건복지부, 2024.09.13.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안건 요약)」, 2024.09.1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월 출시…기업지원금+금리우대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2024.09.19.

#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8호(2024.09.27)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09월 27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http://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